

목차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김원전」	P.014	P.006
2024학년도	수능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자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잊음을 논함」	P.016	P.012
2024학년도	수능	박태원, 「골목 안」	P.020	P.020
2024학년도	수능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P.022	P.026

PART 1

현대시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P.030	P.034
2023학년도	수능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P.032	P.038
2023학년도	6월 모평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P.034	P.042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P.036	P.046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기림, 「연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P.038	P.050
2022학년도	예시문항	백석, 「수라」 / 김선우, 「신의 방」	P.040	P.054
2021학년도	수능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P.042	P.058
2021학년도	9월 모평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P.044	P.061
2021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P.046	P.065
2020학년도	수능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P.048	P.069
2020학년도	9월 모평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P.050	P.072
2020학년도	6월 모평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P.052	P.075

PART 2

고전시가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P.056	P.080
2023학년도	9월 모평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P.058	P.085
2022학년도	수능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P.060	P.089
2022학년도	9월 모평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P.062	P.093
2021학년도	6월 모평	정철, 「관동별곡」	P.064	P.097
2020학년도	9월 모평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66	P.101

PART 3

현대소설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양귀자, 「원미동 시인」	P.070	P.110
2024학년도	6월 모평	최명익, 「무성격자」	P.072	P.115
2023학년도	수능	최명희, 「쓰러지는 빛」	P.074	P.120
2023학년도	9월 모평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P.076	P.125
2023학년도	6월 모평	채만식, 「미스터 방」	P.078	P.129
2022학년도	수능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P.080	P.134
2022학년도	6월 모평	홍성원, 「무사와 악사」	P.082	P.139
2022학년도	예시문항	이광수, 「무정」	P.084	P.143
2021학년도	수능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P.086	P.147
2021학년도	9월 모평	이기영, 「고향」	P.088	P.151
2021학년도	6월 모평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P.090	P.156
2020학년도	수능	김소진, 「자전거 도둑」	P.092	P.160
2020학년도	9월 모평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P.094	P.164
2020학년도	6월 모평	박경리, 「토지」	P.096	P.168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P.100	P.174
2024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상사동기」	P.102	P.179
2023학년도	수능	조위한, 「최척전」	P.104	P.184
2023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정수정전」	P.106	P.188
2023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소현성록」	P.108	P.192
2022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박태보전」	P.110	P.197
2022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배비장전」	P.112	P.202
2022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P.114	P.206
2022학년도	예시문항	작자 미상, 「박씨전」 / 작자 미상, 「조보」	P.116	P.211
2021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최고운전」	P.120	P.217
2021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심청전」	P.122	P.222
2020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P.124	P.226
2020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장끼전」	P.126	P.231
2020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조웅전」	P.128	P.235

PART 5-1 갈래 복합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박용래, 「월훈」 / 김영랑, 「연 1」 / 서영보, 「문의당기」	P.134	P.242
2024학년도	6월 모평	권호문, 「한가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P.138	P.248
2023학년도	수능	이항, 「도산십이곡」 / 김득연, 「자수정가」 / 김훈, 「겸재의 빛」	P.142	P.254
2023학년도	9월 모평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P.146	P.260
2023학년도	6월 모평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P.150	P.265
2022학년도	수능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P.154	P.271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P.158	P.277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시습, 「유객」 / 김광옥, 「율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P.162	P.283
2021학년도	수능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의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P.166	P.289
2021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P.170	P.295
2020학년도	수능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권근, 「어촌기」	P.174	P.302
2020학년도	6월 모평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P.178	P.308

PART 5-2 영역 융합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예시문항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	P.182	P.314
2021학년도	9월 모평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 이덕무, 「우언」	P.184	P.318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국어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의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2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이며,
선택과목은 11문항입니다.

	공통과목 (문학 + 독서)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	→ 총 80분
문항 수	34문항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11문항	→ 총 45문항
배점	76점	24점	→ 총 100점

수능 국어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무용지물일까요?
아닙니다! 수능 시험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지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시험의 성격은 기출 분석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

- 1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4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 5 문제를 틀리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공부 가능하도록! 1. 2. 3회독 ... 기출 분석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홀수 기출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홀수 기출 분석 노트

- 문제의 답과 근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출 분석 노트!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면 수능 국어 기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홀수 기출 분석 노트만 따라 하면, 제대로 된 기출
분석 가능!
기출 분석의 중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STEP별로 나누어
분석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대로 따라 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공부하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법 *문제 책 P.024의 기출 분석 노트 사용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시간 제한 풀기

1
STEP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문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풀 문제
1	① ③ ④ ⑤	✓	
2	① ② ③ ④ ⑤	✓	

홀수 기출 분석집 문제 책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 목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푼다. 찍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내에 풀고, 확신
없이 풀 문제와 시간 제한을 넘긴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둔다.
아직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3
STEP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문제	정답	STEP 1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내가 선택한 답
1	②	① ③ ④ ⑤	○ △ ×	① ③ ④ ⑤
2	①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채점을 하고 STEP 1과 STEP 2의 정답 여부에 따라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시간 제한 없이 풀기

2
STEP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①	[A]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 안 나타남. 그전에 정말 안 나	
②	[A]에서 황상이 '제신' 중에 뒤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요! 저것은 벼어 화상께 바치리이다.라고 곡소위 단하는 것에서 화과 스	

같은 세트의 문제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분석해
봅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적습니다. 이때
에도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기출 분석의 반복

4
STEP

*N회독
N회독을 할 때는 3 STEP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훈련 단계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회독	1~2회독(1학기)	3회독 이상(2학기)
1	① 지문의 핵심 요소 및 구조 완벽하게 분석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① 지문은 흐름 중심으로 분석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STEP 1~STEP 3의 과정을 밟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구성과 특징

첫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5개년 평가원 기출 전 지문, 전 문항을 수록하여 지문 접근법과 문제 풀이법을 안내합니다.

셋째 문제 유형과 정답을 표시를 통해 취약한 문제 유형을 진단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체감 난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INTRO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지문과 문제 유형별 출제 경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합니다.

[1~4] 작자 미상, 「김원전」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 고전소설 지문은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2023학년도 수능의 「최학전」과 2024학년도 수능의 「김원전」이 모두 EBS 연계 작품이면서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작품이라, 익숙한 작품이지만 일부본은 처음 보는 부분이라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인물 간의 관계와 사건을 파악하여 꼼꼼히 읽었다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익숙한 작품이었고 문제의 난도도 높지 않아서 전체적인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문학 영역의 첫 번째 지문인 만큼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평소 대표작인 고전소설 지문들을 충분히 분석하며 대비해 보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정**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임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을 좋아하는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원정**이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어쉬니 서경태가 날리여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원정**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원정**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니 이런 일은 보도 들도 못하였으니 계산 중에 누이 **원정**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요.”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검규를 부르셨다.

// **원정** **원정** 전 좌상상 검규를 돌려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할 이때 **원정**이 **원정**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기를 받자와 본즉, “전임 좌상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원정**을 **원정**하여 공주를 알고 종적을 보르니 **원정**함을 어찌 **원정**하리요, 공주를 잃어 **원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원정**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원정**을 물으니 **원정** **원정**하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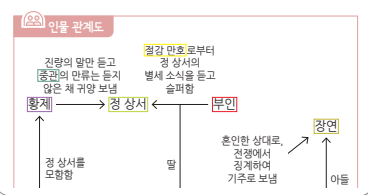
▶ 친절하고 자세한 지문 분석

출수 해설은 문제의 지문을 해설에도 실어 정답과 오답 선지에 대한 근거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갈래별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를 시각화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문의 핵심 정보 및 보기 분석

지문에 정리된 갈래별 중요 요소를 표 또는 구조도의 형태로 정리하여 한눈에 지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학 작품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보기>에 대해서도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지문과 <보기>의 연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	사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행한 역할을 읽고 들어와 임금과 가족을 만난 '나'
상황?	배를 타고 떠나가는 길에 기상이 악화하여 가뭄 풍랑을 만난 → 귀국 후에 임금을 알현하다가 심한 타위에 괴로워하자 하라는 허락을 받음 → 화자로 돌아와 누이와 딸, 일가 친척의 환영을 받음 → 공주로 내려가 기뻐하는 가족과 재회하고



(가) 유치환, 「재전」	(나) 나희덕, 「음지의 꽃」
- 생명체들의 필요모양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 만물의 조화로움 성장과 종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	-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 - 인간의 욕망에 의해 황폐화된 현실 →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님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률 85%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가)는 “찌푸린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 등에서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반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되었을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사라’,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등에서 화자가 원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대상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고 있을 뿐,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률 100%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가)는 1연의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반년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정답률 85%

2. **아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률 100%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아픈 기억’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소리이므로,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전’에 사무치는 소리이므로, 설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률 100%

① 암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화자는 자신의 ‘아름’이 ‘기쁜’하여 임에게 바칠 ‘자랑과 선물’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서려 있는 피리의 ‘아픈 기억’만을 들려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아픈 기억’이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나무에서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아픈 기억’에는 임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을 뿐, 이것이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하고 있다고 볼 수

▶ 꼼꼼한 전 문항 해설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들잡기

- ①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④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⑤ 영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표현 방법. 감탄사와 감탄 어미를 사용하거나 호칭어를 사용하고, 명령이나 권유, 설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까지도 영탄법으로 볼 수 있음.

가들잡기

문학 개념어 및 간략한 어휘 풀이를 담아 수능 국어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에는 해당 지문에서 꼭 챙겨가야 할 어휘를 풀이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 2~⑤번

Q: 원이 떠올린 ㉠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세 공주를 구하기 위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원수)은 ㉠(국변)을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내고는 공주에게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교'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 아귀는 여러 여자가 권한 술을 마신 후에 취하여 잠

모두의 질문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적 문제

• 10~④번

학생들이 정답 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④번이다.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선지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심'과 '충성심'과 같은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화려한 집'과 '재물'과 같은 외적인 대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문제적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INTRO

2024학년도 수능 문학 심화 분석

유형 분석

지문의 중심 사건인 '국변'에 인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지에 제시된 주체들이 중심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하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유형 분석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각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문제 풀이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주 틀리거나 확신 없이 풀었던 문제 유형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의 KEY POINT

시를 <보기>와 연관 짓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시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②번, ③번은 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까다롭게



박광일의 KEY POINT

2024학년도 수능의 지문과 문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콕 집어 설명해 줍니다. 기존의 평가원 출제 경향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고, 새로운 경향에 어떻게 대비해 가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설 책의 INTRO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박광일 선생님의 총평이 실려 있습니다.

6주 완성 학습 PLAN

✓ 체크하세요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1 주차	01~02	P.014 작자 미상, 「김원전」	25:00			
		P.016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자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잇음을 논함」				
		P.020 박태원, 「골목 안」				
		P.022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03	P.030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5:30			
		P.032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4:30			
		P.034 산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4:30			
	04	P.036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5:30			
		P.038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4:30			
		P.040 백석, 「수라」 / 김선우, 「신의 방」	5:30			
	05	P.042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4:30			
		P.044 김수영, 「사경」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4:30			
		P.046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4:30			
	06	P.048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4:30			
		P.050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4:30			
		P.052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4:30			
07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2 주차	08	P.056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5:30			
		P.058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5:30			
		P.060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5:30			
	09	P.062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5:30			
		P.064 정철, 「관동별곡」	5:30			
		P.066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5:30			
	10	P.070 양귀자, 「원미동 시인」	6:00			
		P.072 최명익, 「무성격자」	6:00			
	11	P.074 최명희, 「쓰러지는 빛」	6:00			
		P.076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6:00			
	12	P.078 채만식, 「미스터 방」	6:00			
		P.080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6:00			
	13	P.082 홍성원, 「무사와 악사」	6:00			
		P.084 이광수, 「무정」	6:00			
14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3 주차	15	P.086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6:00			
		P.088 이기영, 「고향」	6:00			
	16	P.090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6:00			
		P.092 김소진, 「자전거 도둑」	5:30			
	17	P.094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6:00			
		P.096 박경리, 「토지」	6:00			
	18	P.100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6:00			
		P.102 작자 미상, 「상사동기」	6:00			
	19	P.104 조위환, 「최척전」	6:00			
		P.106 작자 미상, 「정수정전」	6:00			
	20	P.108 작자 미상, 「소현성록」	6:00			
		P.110 작자 미상, 「박태보전」	6:00			
21		복습				

4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22	P.112	작자 미상, 「배비장전」		6:00			
	P.114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6:00			
23	P.116	작자 미상, 「박씨전」 / 작자 미상, 「조보」		7:00			
	P.120	작자 미상, 「최고운전」		5:30			
24	P.122	작자 미상, 「심청전」		5:30			
	P.124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6:00			
25	P.126	작자 미상, 「장끼전」		5:30			
	P.128	작자 미상, 「조웅전」		6:00			
26	P.134	박용래, 「월훈」 / 김영랑, 「연 1」 / 서영보, 「문의당기」		7:30			
27	P.138	권호문, 「한거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7:30			
28		복습					

5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29	P.142	이황, 「도산십이곡」 / 김득연, 「지수정가」 / 김훈, 「검재의 빛」		7:30			
30	P.146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7:30			
31	P.150	황희, 「사시가」 / 조우인, 「자도사」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7:30			
32	P.154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7:30			
33	P.158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8:30			
34	P.162	김시습, 「유객」 / 김광옥, 「율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7:30			
35		복습					

6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36	P.166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의 워석버석~」 / 유분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7:30			
37	P.170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7:30			
38	P.174	신계영, 「월선현심육경가」 / 권근, 「여춘기」		7:30			
39	P.178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7:30			
40	P.182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		8:00			
41	P.184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홍」 / 이덕무, 「우연」		8:00			
42		복습					

🔊 1회독 6주 완성 프로그램 - 2, 3회독을 할 때에는 Day2~3일 분량을 묶어 하루치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고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홀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반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탄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마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동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켜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1.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2.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잡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기술 분석 노트 문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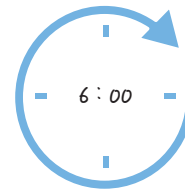
*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기술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분석 날짜	2024년 1월 20일	문제 페이지	P.014	출제 시험명	2024학년도 수능
지문명	작자 미상, 「김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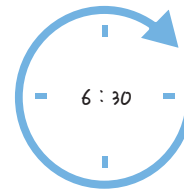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1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4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목표 시간



소요 시간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 못 찾은 것
1	①	[A]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 안 나타남. 그런데 정말 안 나타난 게 맞을까? 애매하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A]에서 황상이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요'라고 말하고, 한세종이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라고 공손히 답하는 것에서 왕과 신하 사이의 위계 관계와, 황상과 아귀 사이의 적대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③	[A]에 과거 상황은 안 나타남.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교차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는 없지.	
	④	[A]에 인물의 회상은 안 나타남.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할 수는 없지.	
	⑤	[A]에서 아귀의 만행에 황상이 '크게 놀라'고 '용루를 흘리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해서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지는 않음.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황상은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니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다고 하며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있음. 그런데 신하들에게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전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②	이우영은 ㉠을 해결하고자 하는 황상의 질문에 답하여 '치모 넉넉'한 인물인 '김규'를 거명하고 있음.	
	③	황상은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공주를 잃었다고 위기 상황을 알림.	
	④	승상은 자식인 원이 '철마산'에서 ㉠의 원흉인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었던 일을 황상에게 아뢰며,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로 원을 천거함.	
	⑤	원은 ㉠을 해결할 '계곡'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아귀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전해 들어, ㉠을 해결할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됨.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 못 찾은 것
3	①	㉓에서 황상이 전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감정이며, 숨겨 온 상황이 아님. ㉔에서 승상이 전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의 해결책이며, 숨겨 온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	
	②	㉓에서 아귀는 '남두성을 잡아 죽이겠다'며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여 시녀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음. 그러나 ㉔에서 승상은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게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을 뿐,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음.	
	③	㉓에서 황상은 지금 '불행'하며 공주를 잃어 '통한함'을 측량할 수 없이 느낀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있음. ㉔에서 여자들은 원과 협력하여 아귀를 물리치려는 의도를 숨기면서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시어 첩 등의 우려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음.	
	④	㉔에서 승상은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할 것 같다고 하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하고 있을 뿐,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㉓에서 여자들은 아귀를 물리치려는 계교를 숨기며 '주찬'을 줄이도록 권하고 있을 뿐, 아귀의 안위를 우려하거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 않음.	
	⑤	㉓에서 아귀는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겠다고 하며 자신의 목표를 밝히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㉔에서 여자들이 아귀를 물리치려는 계교를 실행하고자 하면서 한 말로,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①	<보기>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이 나타남 + '급히 입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라' 아귀에게 맞서는 서경태, '계교'를 생각하고 공주의 도움을 받아 아귀를 상대하는 원수(원) → 압도적 무력을 가진 아귀에게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	
	②	<보기>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함 + '황상'을 위해 아귀에게 대항한 한세충, 고향에 있다가 황상의 불행을 알고 '못내 슬퍼하며 상경'한 승상 → 충군의 가치를 지키는 인물들!	
	③	<보기>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가 나타남 + '원의 칼'에 머리가 상하고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겠다고 다짐하는 아귀 → 피할 수 없는 주인공(원)과 적대자의 대결!	
	④	<보기>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이 나타남 + 황상에게 있어 '국운이 불행'하여 잃게 된 존재인 공주가 원수(원)의 계교를 실행하기 위해 아귀를 깊게 잠들게 함 →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로 나타나는 여성 인물!	
	⑤	<보기>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한 주인공인 원수(원) → 원수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기는 함. 그런데 이 힘으로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 좀 애매하지만 일단 나머지 4가 적절하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

PART

1

현대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
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
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심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P.014	P.006	작자 미상, 「김원전」	1. ②	2. ①	3. ③	4. ⑤		
P.016	P.012	김종길, 「문」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유한준, 「잊음을 논함」	5. ②	6. ①	7. ③	8. ③	9. ②	10. ⑤
P.020	P.020	박태원, 「골목 안」	11. ①	12. ④	13. ①	14. ②		
P.022	P.026	김인겸, 「일동장유가」 / 유박, 「화암구곡」	15. ②	16. ③	17. ④			

[1~4] 작자 미상, 「김원전」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 고전소설 지문은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2023학년도 수능의 「최척전」과 2024학년도 수능의 「김원전」이 모두 EBS 연계 작품이면서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는 작품이야. 익숙한 작품이지만 앞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이라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인물 간의 관계와 사건을 파악하며 꼼꼼히 읽었다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익숙한 작품이었고 문제의 난도도 높지 않아서 전체적인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문학 영역의 첫 번째 지문인 만큼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평소 대표작인 고전소설 지문들을 충분히 분석하며 대비해 보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임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니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황상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한세충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 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홍적은 목을 늘어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 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압도적 무력으로 황상과 만조백관을 물리치는 아귀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 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 장면 묘기 01 궁궐에 등장한 아귀가 황상과 만조백관을 공격하고, 세 공주를 납치함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고*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려보지 못하였다. 아귀에게 세 공주를 잃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황상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 장면 묘기 02 전 좌승상 김규를 불러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방안을 얻고자 함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반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공주를 잃어 통한한 마음을 드러내는 승상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조정에 등장한 아귀가 난을 일으키고 세 공주를 납치해 간 일에 슬퍼하는 승상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사리에 어두운 자신과 국운의 탓으로 세 공주를 잃었다고 한탄하는 황상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 장면 묘기 03 황상의 부름을 받은 승상은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아들인 원을 조정으로 부르코자 함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독한 술을 이용하여 아귀에게 대항하려 하는 원수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㉔“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 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 기를, 아귀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기뻐하며 술과 음식을 권하는 여자들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㉕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의 손에서 칼을 놓게 하는 막내 공주**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켜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원수의 칼이 아귀를 해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놀라는 공주**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장면 표기 04 원이 공주에게 도움을 얻어 잠든 아귀를 해치를 계략을 세움

— 작자 미상, 「김원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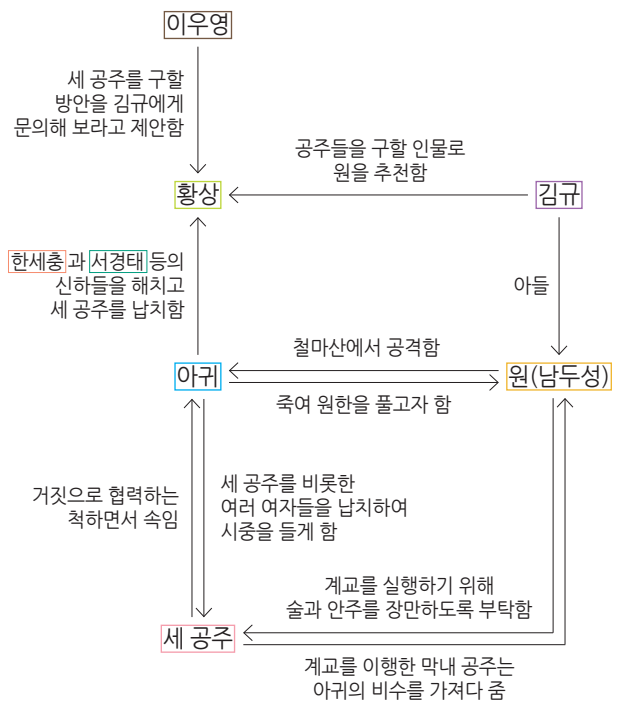


전체 줄거리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난 남두성은 수박 형상을 하고 김규의 아들로 태어난다. 열 살이 되도록 허물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던 김원은 선관의 도움으로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하고, **아귀가 황제의 세 공주를 납치하자 도원수가 되어 지하국에 들어가 아귀를 처치한다.** 그러나 김원의 부하들은 김원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지하국의 굴 입구를 막아 버리고, 굴속을 헤매던 김원은 용왕의 아들을 구한 계기로 용왕의 딸과 결혼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김원은 살해되지만, 선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 나게 된다. 이후 황제는 돌아온 김원을 부마로 삼고, 용녀는 정숙 공주에 봉한다. 김원은 두 부인과 함께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승천한다.



인물 관계도



이것만은 챙기자

- ***하교**: 임금의 명령을 내림.
- ***용루**: 임금의 눈물.
- ***작란**: 난리를 일으킴.
- ***사은숙배**: 예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던 일.
- ***계교**: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유형 분석

이 문제는 지문 내 특정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묻고 있어. 따라서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문에 해당 서술상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효과 또한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지.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들은 이전 기출에서 다루었던 개념어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므로, 평소 고전소설 지문을 학습할 때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어들을 누적하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거야.

1.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A]에서는 조정에 아귀가 등장한 상황에서 황상이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라고 말하자 정서장군 한세충은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한 이후에 상이 크게 놀라며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라고 '여러 신하'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군신 관계, 적대 관계라는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A]에 서술자의 개입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A]에 과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거나 이를 통해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A]에 인물의 회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A]에서 황상은 아귀를 상대하던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고, 환궁한 후 세 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놀라 하교하'며 '옹루를 흘리'고 있다. 따라서 황상의 반응을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유형 분석

지문의 중심 사건인 '국변'에 인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지에 제시된 주체들이 중심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하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2.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변

✔ 정답풀이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황상은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라는 말을 통해 아귀가 조정을 침범하여 공주들을 납치한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라며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찾아내고 있으므로, 황상이 '전장'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여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이우영은 '조정'에서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라며 ㉠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황상에게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익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라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로 '김규'를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황상은 '고향'에서 ㉠의 여파가 미치지 않아 '평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조서를 보내 '불행하여 공주를 잃'었다며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승상은 황상에게 원이 '철마산'에서 ㉠의 원흉인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운 일에 대해 아뢰고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라며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로 원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을 해결할 '계교'를 떠올리고, '협실'에서 만난 공주로부터 아귀가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기틀잡기

② 거명하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려 말하다.



모두의 질문

• 2-⑤번

Q: 원이 떠올린 ㉠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세 공주를 구하기 위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원수)은 ㉠(국변)을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내고는 공주에게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교'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 아귀는 여러 여자가 권한 술을 마신 후에 취하여 잠 들고 공주는 원수에게 아귀가 잠들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보아, 원이 떠올린 ㉠의 해결 방안은 아귀가 잠든 틈을 타 처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이 '협실'에서 만난 공주에게 아귀의 '비수'를 받아 '큰 기둥'을 쳐 보며 성능을 시험해 보는 모습을 통해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절의 의미 및 기능 파악 | 정답률 87



유형 분석

특정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선지의 길이가 길고 각각의 선지에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금방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밑줄 앞뒤의 문맥과 대화 상황에 제시된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의 태도를 파악한 후에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해 가면서 정답을 찾으면 돼.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탄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 ㉡: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 ㉣: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정답풀이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황상은 ㉠에서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탄'하다고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을 승상에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아귀에게 붙잡힌 여자들은 ㉣에서 계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과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황상이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탄'하다고 말한 것은 '지모 넉넉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인 승상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일 뿐,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는 승상이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해 달라는 황상의 부탁을 듣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아들인 원을 추천하는 것일 뿐,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는 승상이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해 달라는 황상의 부탁을 듣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아들인 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황상과 승상의 관계로 보아 승상이 황상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에서 아귀는 '남두성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며 여자들(시녀)에게 강압적으로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⑥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④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승상은 아들인 원이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언급한 후, ⑥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아들인 원을 추천하고 있을 뿐, 황상에게 당위를 내세워 원을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귀에게 붙잡힌 여자들은 계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 ㉔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귀의 안위를 우려하거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⑤ ㉔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㉔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㉔에서 아귀는 '남두성을 잡아 죽'이겠다며 자신의 목표를 밝히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며 여자들(시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㉔에서 아귀에게 붙잡힌 여자들은 계교를 실현하기 위해 아귀를 속이고 있을 뿐, '남두성을 잡아 죽'이겠다는 아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



기름잡기

④ 당위: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률 86



유형 분석

〈보기〉를 참고해서 뒷글을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야. 〈보기〉의 내용은 작품의 갈등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런 경우 선지의 내용이 지문과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보기〉에 어긋나지 않는지, 지문과 〈보기〉의 연결이 적절한지 모두 확인해야 해.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보기 분석

- 「김원전」의 갈등 구조와 특징
 -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함
 -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vs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줌
 -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
 - 독자의 흥미 자극

정답풀이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뒷글의 주인공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했다. 뒷글에서 승상이 황상에게 '소신의 자식'인 원이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다고 말한 부분에서 주인공인 원수가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수가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는 것은 원수의 계획이 아니라 원수의 칼로 아귀를 처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공주의 계획이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PART

1

현대시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P.030	P.034	조지훈, 「맹세」 / 오규원, 「봄」	1. ④	2. ②	3. ⑤	4. ③
P.032	P.038	유치환, 「채전」 / 나희덕, 「음지의 꽃」	1. ①	2. ④	3. ②	4. ③
P.034	P.042	신동엽, 「향아」 / 기형도, 「전문가」	1. ②	2. ④	3. ①	
P.036	P.046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 ②	2. ④	3. ⑤	4. ③
P.038	P.050	김기림, 「연료」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1. ④	2. ⑤	3. ②	
P.040	P.054	백석, 「수라」 / 김선우, 「신의 방」	1. ④	2. ②	3. ③	4. ①
P.042	P.058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1. ⑤	2. ②	3. ④	
P.044	P.061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1. ⑤	2. ②	3. ①	
P.046	P.065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1. ③	2. ④	3. ⑤	
P.048	P.069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1. ④	2. ②	3. ④	
P.050	P.072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1. ②	2. ③	3. ④	
P.052	P.075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1. ⑤	2. ①	3. ④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량과 선물을 지나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뎌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이 되는 날까지
그 솟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대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
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
러라. 그대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대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담벽, 라일락, 별, 개의 똥과 같은 대상들이 언어를 통해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나'
상황?	대상들에게 자유로운 언어의 세계에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라고 권함 → 대상들 하나하나가 원하는 바를 실현 하기를 바램 → 대상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바램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는 '나'
상황?	절실하게 사랑하는 임을 위해 죽음조차 불사하려 함 → 절대적인 존재인 임의 손길에 올 → 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한탄함 → 임이 피리의 아픈 가락을 들어주었으면 함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

| 표현상의 특징 파악 | 정답률 88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가)는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 등에서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되었을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등에서 화자가 원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대상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고 있을 뿐,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풀이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가)는 1연의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랴'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또한 6연의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에서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사랑하는 임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가)는 4연의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와 9연의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임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나)는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동 하나'에서 '저기 저'라는 반복적인 표현과 쉼표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에서 '~은 내 언어의 ~이 되고'라는 반복적인 표현과 쉼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5연과 10연의 마지막에서 '나는 울어라'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바라보고 임의 손길을 느끼는 감격과 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는 1연 끝 문장인 '그래 봄이다.'의 '봄'을 2연 첫 문장인 '봄은 자유다.'에서 반복하여 연결함으로써 '봄'은 세상 만물이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 정답률 85

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 솟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소리이므로,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천'에 사무치는 소리이므로, 설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여 임에게 바칠 '자랑과 선물'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서려 있는 피리의 '아픈 가락'만을 들려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아픈 가락'이 임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아픈 가락'에는 임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을 뿐, 이것이 임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아픈 가락'은 흐느끼는 피리 소리를 가리키며, 임이 이에 호응했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을 뿐,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않는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담긴 '구천'에 사무치는 소리로, 임에게 달았으면 하는 대상일 뿐,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보기 분석

(가)	(나)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바람이 담김	
화자가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려 함	화자가 대상들의 모습에 주목함



이러한 차이가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함

정답풀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는 상황을,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입을 향한 자신의 '붉은 마음'이 '꽃송이'가 되더라도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봄'과 같은 세계를 '담벽', '라일락', '별', '개의 똥'과 같은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므로, '담벽'은 화자가 세계를 공유하려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봄'과 같은 세계를 '담벽' 안에서 대상들과 공유하려 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가)에서 화자는 '어둠'에서 '피터진 입을 맞추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어' '해돋는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이때 '어둠'은 입이 부재한 고통스러운 세상을, '해돋는 아침'은 입과의 재회가 이루어진 세상을 상징하므로, 화자는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에서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을 바란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담벽', '라일락', '별', '개의 똥'과 같은 대상들에게 자신이 만든 자유로운 '언어'의 세계 속에서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지고,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가)의 화자는 '어둠'의 '꽃송이'를 '창백'하다고 여겨 '입을 맞추고'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와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아지랑이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에서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어'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어둠'을 몰아내고 '해돋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죽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희생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대상들에게 자유로운 세계인 '봄'에, '꽃피는 싶은 놈 꽃피고, ~아지랑이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적 문제

• 3-③번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택지는 ③번이다. (나)에서 화자가 대상들의 개별성에 주목한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들에게, '내 언어 속에서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라고 주문하고, 대상들이 자유로운 '봄'의 세계에서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외적 준거로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처럼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며, 대상을 하나하나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개별성을 지닌 존재임을 부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분석

		매력적 오답			정답
①	②	③	④	⑤	
17%	2%	24%	11%	46%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률 75

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내 언어 속에 서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더라.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보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보기 분석

- (나)에서 보여 주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
 - 언어를 통해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다시 언어에 구속됨(필연적 한계) →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 벗어나려는 시도를 함
 -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정답풀이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은 '봄'을 '자유'라고 하던 기존의 표현에서 벗어나 '꽃피는 지옥'이라고 새롭게 표현하여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 갇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나)의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였다. ㉠은 대상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보기>에서 언어는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지니는데, (나)는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라고 하였다. ㉡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을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에게도 자유를 부여했음을 의미할 뿐,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나)의 시인은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라고 하였다. ㉢은 '봄'을 기존과 달리 '지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언어로 대상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대상들을 언어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할 뿐,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나)의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라고 하였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만든 자유로운 언어의 세계에서 대상들이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화자가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